

예향 남도 문화예술 재조명 성장동력 키운다

전남도 '남도문예 르네상스' 주요 사업은

서화·전통정원·문학 등 비교우위 자원 12개 선정 남도문예 전담팀 신설·국제 수목화 비엔날레 개최

전남도가 향후 2100억원이 넘는 재원을 남도 문예자원에 대한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명맥을 잃어가고 있는 예향 남도의 우수한 문화예술 유산을 '월빙과 힐링'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조류에 맞춰 재조명해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우위를 점하는 지역 문예자원으로 서화, 전통정원, 종가문화, 바둑, 문학, 다도, 도자, 판소리,

음식문화, 공예, 전통연희, 고인돌 등 12개를 선정했다. <서화, 전통정원 등 12개 비교우위 자원>=전남도는 첫 단계로 전남이 비교우위에 있는 전통 문화예술자원 가운데 지역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자원 12개를 뽑았다. 전남은 국보 제240호 '자화상'을 그린 공재 윤두서, 윤림산방에서 남종화의 화맥을 이어온 소치, 미산, 남

농과 추사 이래 한국 서예의 1인자로 불렸던 소전이 나고 자란 한국서화의 보고장이라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또 담양의 소재원과 강진 백운동 서원, 완도 세연정 등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정원을 비롯한 무려 600여개의 누적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전남의 34개 종가는 선조들의 음식, 법도와 예절, 종택 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문화 콘텐츠로서의 가치가 크다. 전남은 또 인간 대 인공지능과의 세기의 대결로 화제를 모았던 이세돌 9단을 비롯해 강진의 김인, 영암의 조훈현 등 3명의 국수를 배출한 전국 유일의 고장이기도 하다. 최근 '뽀빠이 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문학적 뿌리 역시 전남이다. 보성은 한국

차 생산량의 65%를 차지하는 차 문화와 산업의 중심지이며, 동시에 전국 청자의 80%를 제조하고 있다. 이외에도 판소리, 음식, 공예, 전통연희, 고인돌 등이 핵심자원이다. <국제 수목화 비엔날레 개최 등 24개 사업 추진>=전남도는 이들 12개의 핵심자원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토털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작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문화예술자원을 현대적으로 재창조한 상품을 만들어 관광과 연계하는 등 연관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전시회, 공연, 체험학습,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저변 확대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이들 자원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개발하고, 전남 문화산업의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4개 선도사업을 비롯해 24개의 융복합 사업도 확정했다. 4개 선도사업은 국제 수목화 비엔날레 개최(사업비 50억원), 한국 전통정원 활성화(69억원), 종가문화 활성화(4억원), 국내 최초 바둑박물관 건립(400억원)이다. 이밖에 문화예술 아카이브(17억6000만원) 및 창작교류센터(18억원) 설립, 남도 문학벨트 조성(10억원), 다도문화 대중화(3억9000만원), 전남 명품공예 창작소 설립(50억원), 전남 프리미엄 관광상품 개발(21억5000만원), 남도음식평가 택리지 제작(1억5000만원), 예술작품 멤버십 렌트 사업(1억원) 등이 8대 핵심사업에 포함됐

다. 전남도는 이 밖에도 도립미술관 건립(400억원), G&J 광주전남 갤러리 설치(11억6000만원), 국화호남진흥원 설립(286억원), 황해교류역사관 건립(100억원), 국제음식학교 설립(100억원), 국립남종화역사관 건립(200억원), 소재원 등 가상현실 콘텐츠 개발(32억9000만원) 등 연관사업에도 상당한 예산을 배정했다. 김갑섭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모든 사업을 체계적이고 역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남도청에 남도문예 르네상스 전담팀을 만들었으며,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와 자문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더민주, 야권연대·통합론 다시 '수면 위로'

추미애·송영길·김상곤 당권주자들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 당권 레이스 과정에서 그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던 야권연대 및 통합론이 재점화, 주목을 끌고 있다. 아직은 더민주의 희망사항이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연대와 통합'은 피할 수 없는 화두이기 때문이다. 우선 추미애 의원은 지난 22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대 당 통합과 세력 간 지지자의 통합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다만 "당 대 당 통합 프로그램을 바로 꺼내는 게 아니고, 분열과 분당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지지자부터 위로하는 게 더민주서 먼저 선행돼야 한다"며 수위 조절에 나서기도 했다. 송영길 의원은 지난 24일 출마 선언에서 "전대 이후 진행될 개헌, 정계개편 논란 속에 더민주를 중심으로 야권

연대를 이뤄 정권교체를 이뤄나갈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된다"며 야권연대를 전면으로 내세웠다. 그는 "5월 광주정신을 되살려 잃어버린 호남 민심을 회복하고 야권통합을 이뤄나가겠다. 야권분열 상태로 대선 승리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정의당과 선의의 정책경쟁을 하는 한편 통 큰 연대로 새로운 통합의 중심을 세워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대표가 되면 본격적인 야권공조 하에서 야권연대, 또 통합까지 포함한 열려있는 야권연대 방식을 논의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더민주 당권주자들의 연이은 야권연대 주장을 일축하며 '마이웨이'를 고수하고 있다. 야권 통합 거론 자체가 제3당인 국민의당 입

지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25일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총선 민의가, 3당 체제를 결정했기 때문에 거기(야권연대)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8·27 전당대회 초반 판세는 뚜렷한 우세를 보이는 추미애가 보이기 보다는 혼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특히 당내 최대 계파인 친노(친노무현·진문(진문재인) 진영이 단일대오를 갖추지 분화될지가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 비노의 이종걸 의원, 범진노의 정청래 전 의원 이 레이스에 가세할 경우 보다 복잡한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손학규 전 상임고문의 정계복귀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손학규계를 위시한 당내 비노 진영과 김부겸 의원 등 비노 진영의 선택도 주목된다. /임동욱기자 tuim@

"호남 서러움 대변...정권교체 위해 뛰겠다"

양향자, 더민주 최고위원 출마

더불어민주당 양향자(사진) 광주서을 지역위원장은 25일 국회 정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권교체를 향한 여성의 거대한 움직임에 함께 시작하겠다"며 8·27 전당대회 여성부문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영인인사이자 삼성전자 상무 출신인 양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지난 대선 여성득표율이 3% 뒤졌고, 그만큼 우리는 졌다"며 "정권교체를 위한 3%를 위해 양향자가 뛰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 땅 여성 결의로 가서 공감



하고 뜨겁게 안으면 부족했던 3%를 끌어올리지 않겠다"라며 "정당 여성조직의 다른 길을 개척하겠다. 가장 뒷전으로 밀려온 분들의 삶과 함께 하는 게 새로운 정치의 길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 위원장은 "여성의 삶과 호남의 서러움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국민 앞에 서겠다. 신산업을 개척해온 유능함으로 국민에 호소드리겠다"며 "불가능하지 않다. 시작이 반이고 나머지 반은 시작

한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의식을 끝내는 일"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이어 "뒷전으로 밀린 여성의 삶과 함께할 결심으로 나섰다. 없던 길을 개척하며 피는 물을 흘리던 삶이 제가 마지막이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양 위원장은 여성부문 최고위원 후보로 거론되는 재선의 유은혜 의원 등과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양 위원장의 출마 기자회견에는 대표적 '친노'인사로 분류되는 최재성 전 의원이 함께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양 위원장은 또 이날 회견에서 "최고위원 출마를 결심했다 하니 (문 전 대표가) '담대한 길을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친문(친문재인) 후보임을 암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민의당 '제2창당' 결의 국민의원 박지원 비대위원장(가운데)과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왼쪽), 천정배 전 공동대표가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위원장 임명장 수여식 및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결의문 낭독에 맞춰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대 12월로 앞당기자"

국민의당 연석회의서 일부 주장

국민의당은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당 후 처음으로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제2창당'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연석회의에는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물론 4·13 총선 후보비 리베이트 의혹으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지난달 말 대표직에서 물러난 안철수·천정배 전 공동대표도 참석했다. 의혹을 연루된 박선숙·김수민 의원은 불참했다. 안 전 대표는 축사에서 "26.74(20대 총선 결과 국민의당 정당득표율), 평생 잊지 못할 숫자"라며 "이제 혁명은 시작했다. 국민께서 선거 혁명을 통해서 국민의당을 세워주셨다. 이제 시작이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저도 혼신의 힘을 다 바쳐서 혁명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연석회의의 참석자들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사드 배제 철회' 등 글귀가 적힌 손팻말을 들어 사드 반대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할 전당대회 시기를 애초 내년 1~2월에서 올해 12월로 앞당기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현웅 인천 부평을 지역위원장은 "다른 당들은 8월에 전대하는데, 저희가 기준처럼 2월에 전대가 이뤄진다면 사실 비정상적 체제가 약 7개월 이상 계속되는 것"이라며 "정기국회 일정도 있고, 전대 일정도 있고, 이런 것 무시 못하니 되도록 최소한 12월까지는 당원이 중심이 되는 전대를 치르고, 그에 기초해 내년 대

선을 함께 준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역위원장들은 토론에서 ▲영남특위 구성 등을 통한 국민의당의 전국정당화 ▲사드 배제 반대 당론에 대한 지역 홍보 및 지역 의견 청취 강화 등을 주문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어떤 경우에도 전당대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기 때문에 빨리 모든 것을 정비해서 당헌당규 재개정위원회가 마치는 대로 바로 전당대회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광주전남북에 먼저 대폭적으로 중앙당에서 (시도당 사무실) 지원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전남북은 시도당이 제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국회의원도 광역기초의원도 권리당원도 많기 때문에 2.3개월 내에 자립할 수 있다"며 "그럼 거기 지원금을 자르고, 우리 전라지역에 대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다"고 주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동림동 프리미엄시대를 알리는
광신프로그레스를 지금 만나보십시오

동림동 광신프로그레스

GwangShin Apartment

광주가 꿈꿨던 퍼스트클래스 라이프
76㎡, 82㎡, 84㎡ 총 234세대

계약금 5% 정액제	balcony확장 무료시공
중도금 무이자	전세대 알파공간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본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이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하는 **안전한 일반 분양 아파트**입니다.

문의 062 **511-1141**

시행 |주|에|이|치|원 시공 |주|(주)광신종합건설

* 본 홍보물이 사용된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였으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지 수변 교통시설 및 수변 현상은 인화가 및 정부시책에 따라 변경 및 취소 가능하며, 실제와 차이가 있으므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